



지난 12월 8일 Fire Crusade 집회가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열렸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모나리자, 여러분은 그 보다 더 소중한 존재”

갓스 이미지와 함께 한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 성황리에

지난 12월 8일 파이어 크루세이드 집회가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개최됐다. 집회는 다교회 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사회자로 선 찬양사역자 비키 리와 매튜 김이 집회를 인도했다. This Ability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이어 CCM 가수 김하나, 갓스이미지가 열정적인 무대를 선사하는 가운데, 집회가 열린 소스몰 야외 무대 주변은 몰려든 인파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샘물교회 정기정 목사는 공연 중간에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여주며, 이 그림이 얼마의 보증을 들었는지 짐작해보게 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답은

‘priceless’ 즉, ‘값으로 따질 수 없다’이다. 생각해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의 가치도 이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 우리는 그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다. 저에게는 제 딸이 이 그림보다 더 소중하다. 이 그림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팔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주시고 구원한 존재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있는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 문화선교단체인 갓스이미지(God’s Image, 대표 변용진 목사)의 파워풀한 공연이 진행됐다. 갓스이미지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팀별로 무대에 올라 그동안 갈고닦은 찬양과 댄스를 선보이자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계속됐다. 크리스마스 캐롤로 집회는 마무리됐다.

미국 한인 청년들의 연합집회 파이어크루세이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샘물교회에서 정기집회를 열고 있다. 갓스이미지는 미국 LA에 본사를 두고,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 워싱턴 DC, 텍사스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샘물교회, 굿네이버스, 재정전문회사 브릿지원, LA 버스 회사(LA Coach), 제너럴 바이오, 카후나 체어, Shine Entertainment가 후원했다. 주디 한 기자

미국 초등학교 교장 “교실에서 크리스마스 금지” 논란

미국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교실에서 크리스마스(성탄절)와 관련된 것들을 금지하려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7일 여러 외신들에 따르면, 오마하에 있는 맨체스터 초등학교의 제니퍼 싱클레어 교장은 지난 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상징물 등을

금지한다는 메모를 교사들에게 전달했다. ‘금지’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 산타 또는 크리스마스 아이템



OC목사회 정기총회가 10일 남가주성서교회에서 열렸다.

OC 목사회, 신임회장에 김근수 목사 인준

“월례회 회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목사회 될 것”

2018년 오렌지카운티목사회(이하 OC목사회) 정기총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남가주성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전 부회장이었던 김근수 목사가 신임 회장에 인준됐다. 김근수 목사(청신교회)는 “목사회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월례회라고 생

각한다. 그리고 매주 셋째 주 수요일에도 기도회를 회복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목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건예배에서는 박상목 목사가 ‘하나님을 기다리라’(시편 40:1-5)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문현봉 목사가 축도했다.

- ◇ 교실 안의 크리스마스 트리
- ◇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선반 위의 요정
- ◇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것
- ◇ 크리스마스 음악을 듣는 것
- ◇ 스콜라스틱(Scholastic) 책을 보내는 것-이것은 크리스마스 관련 책이다.
- ◇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물로 만드는 것
- ◇ 막대사탕-이것은 크리스마스 와 관련 있다. 역사적으로 막대사탕 모양은 예수님의 ‘J’다. 빨간색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흰색은 부활의 상징이다.
- ◇ 빨간색/녹색 아이템 -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색상
- ◇ 크리스마스 비디오/영화/또는

크리스마스 영화 캐릭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미국 비영리단체 ‘리버티 카운슬’은 지난 달 30일 현지 교육청에 서한을 보내 “크리스마스를 적대시하는 행위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며 지시 철회를 요구했다.

현지 교육청은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싱클레어 교장의 지시가 교육 방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후 싱클레어 교장은 지난 5일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교직원들의 실수로 지시 사항이 잘못 나갔다”고 해명하며 “이번 혼란과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교장은 현재 행정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의 기자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펙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 T.(562)916-5191
 (한인 매니저) |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피종진 목사 초청

영성집회에 초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받라(사60:1)

일시 12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12월 1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12월 19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아 김 목사 시무)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213-272-6031

주최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RPCA, 총회장 김인철 목사)

후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살롬기도원, 나눔과 섬김의 교회, 임마누엘 사랑의 교회

남서울중앙교회 원로 피종진 목사

김인철 목사
 RPCA 총회장

엘리아 김 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담임

한인기독교상담소 칼럼

갱년기를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

갱년기(更年期)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되는 시기로 난소 기능 감퇴로 이행되는 기간으로 폐경기라고도 한다. 폐경기(閉經期)는 월경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시기를 말하며, 난소 기능 감퇴로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의 감소로 월경이 끊어지는 시기이다. 폐경이란 말 그대로 "월경의 멈춤"으로 갱년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면 된다. 즉 갱년기는 폐경기를 전후한 수년의 기간을 말하지만 폐경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갱년기는 폐경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매우 넓어 갱년기 초, 중, 후기로 구분을 짓기도 한다. 또한 갱년기는 젊은 나이로도 난소 등의 생식기관을 적출하거나 장기간의 항암치료를 받은 여성에게서도 나타나며,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갱년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조이 상담원
한인기독교상담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첫째, 감정 다스리기를 잘하자. 갱년기 때가 되면 의도하지 않는 데도 자꾸 긴장되고 조바심이 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감정 변화를 겪는 것은 호르몬 영향 때문만은 아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평소보다 더 섬세한 느낌을 들 수 있고 자괴감과 우울감을 느끼며 불안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던지, 상담을 통하여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나이 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런 여성의 정서 문제 해결에는 약물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기분 변화가 호르몬의 영향인지, 환경 변화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인지 진단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우선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을 떨칠 수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수록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꽃이나 채소를 가꾸거나 그림이나 붓글씨를 쓰든지,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약기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운동이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심혈관계, 신경계의 기능이 향상된다. 대한 폐경학회에서 낸 <폐경 여성의 관리>에 따르면 계단 오르내리기, 빠르게 걷기, 달리기 등이 단순 걷기보다 골밀도에 도움이 된다. 국소적인 하중이 실리는 근력 운동도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근육을 강화시켜 뼈로 전달되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운동 강도는 약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가 좋으며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5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적당하다.

심폐 기능, 근력, 유연성과 균형 감각이 모두 호전되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근력운동 그리고 운동 전후에 실시하는 전신 근육 스트레칭을 모두 하도록 한다.

셋째, 음식이다. 폐경이후에 많이 권장하는 식품으로는 '콩'이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 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화합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 인체 내에 흡수되어 대사과정을 거치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조골세포를 증가시켜서 골 형성을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대두, 렌즈콩, 병아리콩과 된장, 두부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아마씨와 비타민 D와 E, 칼슘 등이 있다. 특히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므로 칼슘과 같이 먹는 게 좋다. 칼슘은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에 많이 들어있다. 비타민 E는 견과류, 씨앗, 곡물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40대에 갱년기가 시작되지만, 60대가 되어서 시작되는 사람도 있다. 호르몬 분비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 우울증과 감정의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가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여성이 모든 증상을 다 겪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어려움과 불편한 증상을 거의 겪지 않는 여성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갱년기로 고생하는 우리의 친구, 동료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환란과 고난에 처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건강하게 인생의 후반부를 설계해 보자.

문의) 한인기독교상담소 (kacclia.net) 전화) 213-738-6930 (LA) 657-529-1133 (OC)

미주크리스찬문협 강태광 신임회장
"작품의 질 높여 모임 활성화 할 것"



정지윤 전임회장(右), 김상분 부회장(左), 강태광 신임회장(中)

지난 12월 7일(금) 오전 11시에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는 로텍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회장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USA 대표)가 선출되었음을 전했다.

회장 정지윤 목사는 "미주 크리스찬 협회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강태광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다"며 신임 회장을 통해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고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크리스찬 문인협회가 35년 되었는데 내년으로 30집을 낸다. 올해까지 29집을 냈다. LA 한인사회는 무엇든지 교회 중심이 이루어진다.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많으니 그분들을 초청해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도록 하는 등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동안 10명이 우리 단체를 통해서 출판기념회를 했다. 지금까지 걸은 길을 돌아보면 기도하고 온 것이 생각한다. 인사할 때마다 눈물이 나왔다. 강 목사님이 하시면 기쁨으로 하실 것 같다."

"강태광 목사님은 문학 활동을 계속 해오셨고 시집, 에세이집도 내셨고 본 협회에서 연속 특별강사로 특강을 하셨다. 그래서 모시게 되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는 최고의 문학단체라고 자부한다. 첫째, 가장 오래된 단체이며 많은 문인을 배출했으며 늘 모임을 예뻐 시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 모임과 함께 하면 누구나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회장 김상분 작가는 "정 회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회장을 모시게 되어서 감사하다. 새로운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

남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시길 믿고 더 좋은 문학회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회장에 선출된 강태광 목사는 "자격도 없지만 글쓰는 것을 좋아해 평생 군선교연합회 신문, 미주 한국일보 등에 계속 글을 쓰며 살아왔다"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회장님이 맡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갖고 일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책을 만드는 일은 당분간 정지윤 회장이 하실 것이다. 저는 매주, 매월 문학인 모임에 집중하고 신인작가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에 크리스찬 문인협회 이름으로 문인지, 시집 등을 내려고 한다. 크리스찬 문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 같이 예수를 믿고 문학을 하는 사람끼리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문인끼리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한다."

시인이자 목사인 강태광 목사는 경남 거창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성결대학교, 한세대학교 대학원(M. Div)을 거쳐 골든 게이트 신학교(Th. M.), 총신대 신학대학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등에서 수학했다.

한국에서 군종목사로 20년, 미주 이민 목회 10년에 이어 현재는 월드쉐어USA를 섬기고 있으며 꾸준한 작품활동을 통해 세권의 시집 <은 세상에 그대 얼굴이 숨어 있다>, <불청객>, <그리움 한아름 안고>, 동인지 <씨앗의 노래>, 수필집을 출판했다. 현재는 남미 북은 신문, 미주 침례신문, 기독교일보에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2019년 GMS 미주 OMTC 선교사 훈련생 6기 모집
"건강한 선교를 위해 훈련과 정식 파송은 필수입니다."
GMS(Global Mission Society)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한국 최대 선교단체로, 현재 100 개국에 2600여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GMS 미주 선교사 훈련원에서 GMS정규 특별과정 6기 선교사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받기 원하는 분이나, 파송단체가 없는 현장 선교사나 혹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금요일까지 4주간 정규특별과정을 마치시면 GMS 정식 선교사훈련 수료증과 파송과 임명을 받게 됩니다. 훈련 장소는 플러튼에 있는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박사원에서 진행되며, 강사진으로는 선교 전문성을 갖춘 GMS 이사들과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GMS선교사로 훈련받아 파송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GMS 이사장 김정훈 목사, OMTC 이사장 박무용 목사, 미주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GMS 미주 OMTC선교사 6기 훈련**을 계획하였습니다.
1.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 2월 22일(금) 4주간
2. 장소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도서관 세미나실 (201 S. Basque Ave., Fullerton, CA 92833)
3. 과정 : GMS특별과정
4. 강사 : 김정훈 GMS이사장, 박무용 OMTC이사장외 다수
5. 훈련비 : 1,500불(숙식 포함)
6. 대상 : 목회자 및 선교사, 평신도
7. 자격 : 1) 목사선교사후보생은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합동교단 목사
2) 장기파송은 부부선교사 파송을 원칙으로 함
3) GMS 아메리카지역 소속된 각 지부 지부장 추천 받은자
4) 전도사나 평신도는 타 교단 소속도 가능함
8. 훈련 : 4주 훈련을 원칙으로 함
9. 등록 마감 : 2019년 1월 21일(월)
10. 문의 : 미주 OMTC간사 훈련원 간사 김수정 선교사
11. 연락처 : T.(714)323-5011, (714)614-3666 E-mail: igmc21@gmail.com
GMS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샌퍼난도밸리교협, 성탄축하 연합예배 드리고 기쁨 나눠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가 성탄축하 연합 찬양예배를 만남의교회에서 드렸다.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가 성탄축하 연합 찬양예배를 9일 오후 5시에 만남의교회(이정현 목사)에서 드렸다. 1부 이정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서오석 목사(나성평화교회)가 '구주의 3대 표적'(누가복음 2:8-14)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문광현 목사(밸리온회

목사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성탄축하찬양에서는 유니스최 외 찬양팀 일동, 웨스트레이크한인교회, 은혜와평강교회, 에버그린선교교회, 제일성결교회 연합찬양대가 참여해서 각각 두곡의 찬양을 했으며, 청중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김선일 목사(남가주

마라톤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최지혜, 신유선, 하예린 등 총 14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수여식에서는 광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축도를 했으며, 축도를 하기 직전에 모든 참여자 및 청중들이 일어서서 '할렐루야'를 연합해 찬양함으로 은혜를 더했다.

남가주목사회 조찬 기도회 신규임원 인수 인계식 열려



남가주목사회가 지난 5일 뉴서울호텔에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남가주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가 지난 5일 뉴서울호텔에서 조찬기도회를 열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사회에 박세현 목사, 합심기도에 양경선 목사, 설교에 샘신 목사, 인사 말씀에 신임 회장 김관진 목사, 광고에 강태광 목사, 축도에 한기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샘신 목사는 '선택의 중요성'(갈 5:13-15) 제목으로 설교를 한

가운데,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협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번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인수 인계식에서 51대 샘신 회장과 양경선 총무로부터 52대 김관진 회장, 강태광 간사가 인수를 받음으로 새 회기가 시작됐다.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 6회 크리스마스 파티'



7일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 6회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LA카운티 아동보호국 주최로 코비나 지역에서 열린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제 6회 크리스마스 파티'에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함께 했다. 위탁 아이들과 위탁가정과 카운티 아동보호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를 위해 한인가정상담소는 2천불 상당의 상품권을 후원했다.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사 진을 찍고 선물을 받았다. 마술쇼,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네일 아트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파티에 참석한 한 위탁아이는 "친구들과 마술쇼를 보고 산타할아버지와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선물도 받아서 좋았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

소 카니 정 조 소장은 "오늘 행사는 한인사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가능했다. 크리스마스는 물론 올 한해 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해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2014년부터 LA카운티 내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동지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 내 유일한 아시아 전문 위탁가정 에이전시(Foster Family Agency·FFA)로 활동하고 있다. LA카운티에는 친부모의 학대나 방치, 폭력 등으로 아동보호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 약 3만 5천여명이며, 이중 아시아인은 600~800명 정도다. 한국 아이들은 60~100명 정도다.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성탄축하연합예배 드려 "맘껏 뛰어 오르는 힘찬 성탄, 복된 새해 맞길"



빅토밸리한인목사회는 지난 8일에 성탄축하연합예배를 드렸다.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김성일 목사)는 지난 12월 8일(토) 오후 5시 나눔동산교회(류창렬 목사)에서 목사회 주최 성탄축하연합예배를 드렸다.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고광

덕 목사(한인성안교회)의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과 석우장 장로의 독창, 강성수 목사(빅토밸리복음교회 원로)의 설교로 진행됐다. 강목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의로운 해와 같으신 분으

로 오셨다. 그 분은 속박에 얽매어 있는 우리를 해방하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영육간의 연합함을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에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영육 간에 강건해져서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처럼 맘껏 뛰어오르는 힘찬 성탄절,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류창렬 목사의 봉헌기도와 정원보, 문경학의 남성중창이 이어졌으며 김성일 목사는 2019년에 세 차례의 수련회를 열고 국가기도의 날과 광복절을 기념하여 연합기도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배는 김송국 목사(직전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빅토밸리한인목사회는 오는 1월 7일(월) 오전 11시 새생명한인교회(김송국 목사)에서 신년하례예배를 드린다. 또한 2019년 연합 행사로는 3월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춘계수련회, 4월 21일 부활절새벽연합예배, 5월 국가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 연합기도회, 7월 빅토밸리한인목사회 하계수련회, 8월 광복절 기념 연합기도회, 9월 추계수련회, 12월 성탄축하연합예배가 있을 예정이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움직이 할까? · 언녕 하세요? 16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미디어벽,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이웃교회 Easter SUNDAY 예수, 부활하셨네
 여름성경학교 Vacation Bible School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 92>

지금은 최고의 선교 부흥의 시기이다

요즘 만나는 목사님 중에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쇠퇴해 간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필자는 이 말을 사탄이 듣고 이용할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쓰인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대 부흥기다. 우리 눈에 한인 교회가 약해지는 듯 보이니 하나님의 교회가 시들어져 간다고 착각한 것뿐이다.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남미, 아프리카는 물론 전 아랍권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대 영적추수를 맞이하고 있다. 필자가 지난 12년 이상 다닌 터키는 물론 아랍권 전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양이를 하고 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흥청망청 할 때 70명의 하나님의 군대는 묵묵히 순종하며 중동의 16개국을 향하여 들어 갈 것이다. 지난 천년 세월동안 한 번도 예배가 없었던 그 땅에, 한 번도 찬양이 없었던 그 땅에 들어가 저들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릴 것이다. 기도의 금향로를 쌓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 헌신하며 수행하는 하나님이 늘 예비해 두신 하늘 군대들로 인해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천년 전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 오실 그 날까지 부흥할 것이다. 그 부흥에 참여하는 교회가 있고 반대로 도태되는 성도가 있을 뿐이다. 사실 이런 선교 파송이 북가주에서도 있었고, 시애틀, 뉴욕, 뉴저지, 애틀랜타와 휴스턴에서도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열렸고 수백 명이 선교사로 파송됐다.

지난해 아랍권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가 “이싸(예수)”였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 한인교회들이 영적 정체를 깨고 이기고 열방으로 나가야 한다.

지난 12월 9일 주일 저녁 남가주 새누리교회는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의 남가주 지역 청장년 선교사역자 300여명이 모여 “선교 파송식”을 가졌다. 지난 가을 9주간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4주간의 특수 선교훈련을 마친 단기선교 지원자 68명과 1년간 인도와 터키 등으로 파송 받은 2명의 SM(대학생선교사)등 70명의 파송식이 열렸다. 그중에 1/3이 다민족들이다.

이렇게 300여명의 다민족 기도 공동체가 모여 팔레스타인 이평강 선교사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다. 이 선교사는 6년 전 필자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섬기다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받은 장기선교사이다. 그분이 “평생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살다가 이슬람권 땅에서 선교사로 평생 처음으로 숨죽여 찬송했고, 평생 처음 숨죽여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렇게 사역하며 지금 6년 만에 도서관을 세우고 지역 어린이들을 모아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할 때 우리들 가슴이 뛰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세상이

그들 대부분이 청년이고 다민족이다. 참여한 모든 이들은 그들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의 릴레이를 달릴 것이다. 지역마다 기도 리더십들이 하루 24시간 그들이 돌아오는 그날 까지 기도의 릴레이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 선교단체의 동력이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영적 에너지들이다.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선교에 대한 비관적인 표현을 하지 말자.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교회가 끝장난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 있음을 알고 동참하기를 바랄 뿐이다.

예배를 빠질 때 생기는 영적인 위험 5가지 나단 로즈 목사, 처치리더스닷컴 게재



©Pixabay

미국 미주리주 리버티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자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역사신학 박사인 나단 로즈(Nathan Rose)목사는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에 ‘교회를 빠질 때 생기는 영적인 위험 4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 당신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된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 성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예배를 놓칠 때,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것이다.

2.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24-25)

그렉 길버트(Greg Gilbert) 목사는 “최소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께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

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 중 하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3. 세상에 하나님은 예배드릴 만큼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살펴볼수 있다. 만약 잠을 더 자거나 스포츠를 위해 예배를 빠진다면, 하나님보다 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정기적인 예배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그만큼 가치롭지않다는 것을 드러낸다. 불행히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와 행동이다.

4. 미리 맞볼 수 있는 천국을 거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일이다. 주일 아침에 배는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천국의 진정한 집에 도달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지탱하기 위해 제공해 주시는 생명줄과 같다.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 에 사랑의 손길 요청해

오는 15일(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 14회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음악회(Love Concert of Charity for Homeless)”가 예수사랑세계선교회(조병국 목사) 주최로 샌 율리안 공원(San Julian Park)에서 열린다.

실비아 세인트 제임스(Silvia St. James)찬양팀, 소칼 색소폰 앙상블(Socal Saxophone Ensemble), 강대승 사물놀이팀, 그레이스 림(Grace Lim), 김응화 무용단, 진복일 선교사, 김요셉 목사가 공연한다.

예수사랑선교회는 “어느 누구에게

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져야 할 이 계절에, LA다운타운 길거리에서 얼어붙은 시멘트 바닥에 몸을 기대어 추위에 떨며 외롭게 지내는 노숙자들을 위해 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 겨울을 노숙으로 견디며 거리를 방황하는 그들에게 담요와 슬리핑백을 구입하여 나누어주는 이 행사에 파스한 후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 다운타운 노숙자 300여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 선교회는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이 단체

는 이번 행사를 위해 담요 및 슬리핑백(1장당 \$15×1,000명)과 양방 및 한방 의료선교가 가능한 분, 1,000명 분 도시락, 미용봉사자, 자원봉사자 약 100명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최측은 “이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 가능하신 분야에 사랑의 손길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
문의:213-445-2488(조병국 목사)
웹사이트:www.jlwmission.org
이메일:jlwmission@gmail.com

그레이스미션대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LA 공개 특강

그레이스미션 대학교는 2019년 겨울 공개 특강으로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 (Website for Mission & Ministry)” 과목을 개설했다.

특강은 LA 강의실에서 1월 8일부터 24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며 특별히 엘에이 지역에 있는 각 교회나 평신도 사역자가 기초적인 교육을 통해 웹사이트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다.

강의시간은 화수목 저녁 6:00-

10:30 까지이며, LA 공개 강좌이며, 통신 수강도 가능하다. 장소는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LA Extension)이며 수강료는 150불, 간식 및 책자는 90불이다. 청강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 통신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학점도 원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강의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의 이해’, ‘워드 프레스의 이해’, ‘워드 프레스 설치’, ‘웹페이지 제작’, ‘메뉴구성’,

‘테마 설정’, ‘워드 프레스 글쓰기’, ‘미디어 링크하기’, ‘플러그인 사용하기’로 구성된다. 주교재 “WordPress for Church Website(한국어판)”는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의실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한편, 그레이스미션 대학교는 오는 12월 17일(월)까지 겨울학기 등록을 받고 있으며, 1월 3일(목)부터 21일(월)까지 봄학기 등록을 받는다. 문의: 714-525-0088(본교), 213-529-4147(LA Extension).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만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켜
목자 만드는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30분
EM 예배 오전 10시 30분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토 오전 6시

이상래 담임목사

**축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소 및 전화

4371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 952-3040 / F.(714) 952-8794
www.miraclelandchurch.org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1부) 오전 9: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안식일에 대한 소고

히브리서 4:8-1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히브리서 4:8-11

안식일(영-SABBATH/히-샴바트/헬-샴바톤)의 뜻은 편안히 쉬는 날이며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말합니다(느13:19) 그리고 그 뜻은 '멈추다'입니다.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A. 안식일의 유래(由來)

창세기 2:1-3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게 하실 때 출애굽기 20:8-11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 중략 ...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셨으니 광야교회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넷째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선 안된다.

출 34:21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 칠일에는 쉬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둬 때에도 쉬지며"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옮기거나 짐승에게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렘 17:21-22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했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까지 전날에 준비토록 하셨습니다. 출16:26-27을 보면 "제 칠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 칠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하심을 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C.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하심

출 31:14-15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 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 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하셨습니다.

D.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 실 날

출 31:13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했습니다. 레위기 24:8을 보면 "항상 때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 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했으며, 민수기 28:9-10에는 "안식일에는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십분지 이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때 안식일의 번제와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했습니다.

2. 안식일과 예수그리스도

A. 인자(예수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심

마태복음 12:1-8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윗이 수행원들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강변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습니다.

B. 안식일에 치유하시고 구원 활동을 하심

마 12:10-13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멍이 뚫렸으면 불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환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마른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C.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눅 14:1-6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장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나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했습니다.

눅 13:10-17 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는데 회당장이 분을 내어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라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하니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 너희가 각

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8년간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말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니 반대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D.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막 2:27-28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하셨습니다.

3.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안에서 안식하는 주님의 날로 살게 된다.

롬 8:1-4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한 특별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율법을 준행했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아직 까지

도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이나 안식일을 고집하는 이단도 있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증거된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사관(救贖史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롬 3:20-24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했습니다.

갈 2:20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했으니 진실된 회개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세례로 물속에 장례를 치렀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곧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7-8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고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심으로 살아 있으니 당연히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날로 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 2:14)

은혜로교회 창립 15주년

CHRISTMAS CANTATA

크 리 스 마 스 칸 타 타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 7:30

드리밍 어린이 중창단부터 Praise Team과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며 우리안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길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문의 T.(310)787-7766



NEXT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치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왕상윤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준준 담임목사

구세군나성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 1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금요기도회 금 저녁 7:3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이주철 담임사관

토랜스선한목자교회

1부 한어예배 주일 8:00AM
2부 EM 주일 9:00AM
3부 한어예배 주일 11:00AM
금요 찬양예배 금요일 7:30PM
새벽 기도회 월~토 6:00AM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989-4381

김현수 담임목사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30분
주일학교 오전 10시 30분
청소년예배 오전 10시 30분
English Service 오후 12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남가주 한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8:15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2869 W. Pico Blvd., LA, CA 90006
T. (213) 219-7500

지명환 담임목사

주님의 교회

주일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어린이 & Youth 오후 12:45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5:30(화~금) 오전 6:30(토)



301 W Avenida De Las Flores Thousand Oaks, CA 91360
T.(805)208-8242

오정택 담임목사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0:00
목요예배 오후 7:30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 CA90710
T:(310)326-0300

이황영 담임목사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김철민 장로

시카고벨엘장로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저녁 8:00
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T. (773)545-2222

최병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주일예배 정오 12:00
주일학교 정오 12:00



3735 Hughes ave, Los Angeles, CA 90034
T. (310) 836-8342, (213)663-3301

김명규 담임목사

세리토스 충만교회

Fullness of Christ Evangelical Church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20 (월~금)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T. (714)262-1428

김기동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00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이승준 담임목사

United Christian Seminary UCS 대학교 및 대학원

SEVIS I-20 자체 발행
수시입학 수시졸업가능

목사안수제도
목사안수는 UCS 대학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하는 교단법에 의거 목사고시를 거쳐 미국예수교장로회 교단으로 부터 목사안수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여록 제도 있습니다.



최아브라함 총장

상담문의 : (213)388-5992, 한국어(213)598-3146, Fax(213)388-5973
E-mail: ucscuniversity@gmail.com, ucscuniversity@yahoo.com 주소 : 3130 Wilshire Blvd, #210, LA, CA90010

주비전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이상훈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310)715-9902

윤 목 담임목사

옥스나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269 Walnut Dr, Oxnard, CA 93036
T.(805)485-0100

남재현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3부(영어)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민경엽 담임목사

소망장로교회

주일예배 1부 08:50 AM
주일예배 2부 10:45 AM
주일예배 3부 01:30 PM
수요예배 07:30 PM
새벽예배(월~금)05:30 AM
기도모임(주일) 10:20 AM
기도모임(월) 09:30 AM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505 LA CA 90057
Tel. (213)487-2481

성요셉 담임목사

나성평화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서오석 담임목사

빅토빌 예수마음교회

Heart of Christ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0:00
목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토요기도회 오전 7:00
주일기도회 오전 7:00



15860 Tao Rd, Apple Valley, CA92307
T.(760) 220-3263 www.jesusmind.net

김성일 담임목사

갈릴리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e., LA, CA 90018
T.(323)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남산당 한의원

바른 의술, 좋은 한약

진료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1707 W. Olympic Blvd. LA CA 900515
T. (213) 389-9333

김용훈 원장



2018년 GSM 선한목자선교회 선교의 밤

GSM 선한목자선교회 선교의 밤 성황리 개최

후원자와 선교사를 일대일로 연결하고 후원금 전액을 선교사에게 보내는 GSM 선한목자선교회(대표 황선규 목사, 이하 GSM)가 지난 1일, 미국 워싱턴주 시택 공학 힐튼호텔에서 '2018 GSM 선교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 GSM 선교의 밤에서 워싱턴주 각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 후원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나눴다. 이날 선교의 밤에는 45명의 새로운 GSM 후방선교사가 새롭게 세워져 GSM 선교부가 지향하는 전 세계적인 선교사역의 전망을 밝게 했다. 황선규 목사는 "지상전투와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전, 후방이 함께 연합해야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GSM선교회 1:1 동역 선교는 누구든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하는 이들은 모두가전, 후방 선교사로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자"고 말했다.

황 목사는 이어 "선교일선을 다니다 보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남은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저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오늘도 우리 선교회가 후원자를 찾아 다니는 이유"라며 "주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멈춤이 없고 부족함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보며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선교사와 후원자가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재능으로 1:1 동역 선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효과와 결과는 기대 이상으로 크게 나타난다"며 "주께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GSM이 보다 큰 선교사역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후원, 기도와 헌신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선교의 밤은 권 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의 환영 인사에 이어 안광진 목사(시애틀 비전교회)의 만찬기도, 권중승 선교사(물한그릇 선교회)의 선교보고, 황선규 목사 후원약정서 작성 및 1:1 동역 선교 협력교회 감사패 증정, 조이플 선교 합창단(대표 장현자 목사)의 특별찬양, 이창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GSM 선교회는 1대 1 동역 선교를 통해 100달러가 꼭 필요한 선교지와 후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초교파 선교단체로 2002년 8명의 후원자가 6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진보를 드러냈다. GSM은 해를 거듭하며 선교 후원 규모가 늘어나 15년 만에 매달 1,314명의 후방선교사가 1,188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선교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또한 2020년까지 GSM 3000(선교사 1000명, 후원자 2000명), 2030년까지 GSM 5000(선교사 2000명, 후원자 3000명)을 목표로 선교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폴 원 기자

PCUSA 대서양한미노회

남윤상 노회장, 김세준 부노회장 선출



대서양한미노회 정기노회

미국장로교단 대서양한미노회가 정기노회가 지난 3일(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빌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30명의 총대가 참석한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됐다. 선출된 임원은 노회장 남윤상 목사(사바나장로교회), 부노회장 김세준 목사(갈릴리장로교회), 김준호 장로(웨이빌장로교회), 사무총장 강기석 목사, 부서기 김정숙 목사, 최병호 목사(베다니장로교회), 회계윤치현 목사(헤거스타운장로교회) 등이다. 대서양한미노회는 델라웨어에서 조

지아주까지 동부지역에 산재한 미국장로교단 32개 한인교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미국장로교단에는 전국적으로 3개의 한미노회가 있으며 동성에 결혼과 안수를 금지하는 노회법을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복음적인 한인노회이다.

동성에 결혼, 안수를 금지하고 복음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의: 678-428-5650

앤더슨 김 기자

임마누엘교회, 신용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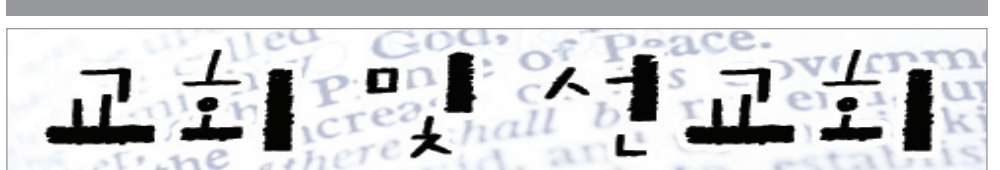
조기 은퇴와 함께 세대교체 앞뒤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신용철 목사)가 담임목사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 현재 담임인 신용철 목사가 안식년에 들어가며 연회에서 파송한 이준협 목사가 담임목사 대행을 맡기로 한 것.

신용철 목사는 지난 12월 2일 대강절 첫 주일 설교에서 만 65세가 되는 2019년 10월에 조기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1991년부터 이 교회 담임으로 27년간 섬겨온 신용철 목사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약 10개월의 안식년을 가진 후 조기는

퇴를 할 예정이다. 후임목사로 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 연회 감독의 지명을 받은 이준협 목사가 사역을 이어받아 목회를 한 후, 신용철 목사의 은퇴와 동시에 담임목사로 정식파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준협 목사는 1973년생으로 서울 창천감리교회의 청년담당 부목사로 7년 간 시무하다가, 지난 2014년 도미해 아틀란타 한인교회(담임 김세환 목사)의 선교담당 부목사를 거쳐 임마누엘교회 후임목사로 섬기게 됐다.



LA 지역

주일에 오전 11:00
주일에 오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영혼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에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일 예배와 삼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8: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에 - 비블리칼리(17)와 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요일 - 사랑음식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방2세를 복음화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사랑음식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S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에 오후 3:00
Heart of David 금요일 오후 8:00
Lighter 금요일 오후 11:00

최수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975 Wilshire Blvd #415, LA, CA 900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서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아침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안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 267-0030 www.churchla.org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베) 오후 7:30
교회학교 오전 9:00

김경철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목요찬양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중고등부 EM 오후 12:15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13: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6: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 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리타노 주일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달린예배(소셜메) 오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몸,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30 리타노 주일 오후 5: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6:00 수요일/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주중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주님을 향한 주님의 향기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 4952 F. (213) 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인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심자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 신의 호를, 바른 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령으로 예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힘쓰는 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함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경이 검증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한글학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 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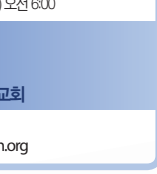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0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명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회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1부 오전 7:00 J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주일 3부 오전 11:15 EM 오전 11:15(교육관)
(Benedict Service)
사랑부 오전 9:00(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교회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5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한기연, 새 대표회장엔 권태진 목사 만장일치로 추대 "화합, 연합, 통합, 3합 위해 노력"



한기연 신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오른쪽)와 직전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연

(사)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4일 오전 군포제일교회에서 제8회 총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장엔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를 만장일치 박수로 추대했다. 또 대표회장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상임회장은 3인 이하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예장합신 제96회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박사, 루이지애나 뱀티스트대 명예철학박사, 웨스트민스터신학대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장총 제30회 대표회장, 성신클럽 제18대 회장, 군포시시도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권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매우 혼란스럽다"며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교회에 개혁과 삶의 기준인 성경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표회장이 되면 화합, 연합, 통합 등 3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3개 기관이 매달 모여서 연합사업과 공동대회를 하여 한국교회 일천만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데 앞장 설 것과, 한기연이 한국교회와 국가, 사회를 선도함으로써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연합기관으로 소임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한기총, 한장총 등 과도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관 제18조(임원회의 구성)의 "대표회장 1인 및 상임회장 1인"을 "대표회장 1인 및 상임회장 3인 이하"로, 제20조(직제와 직무)의 "상임회장은 차기 대표회장이 되며"를 "상임회장은 차기 대표회장이 될 수 있으며"로 개정했고, 선거관리규정 제2조(후

보의 자격)에 5항 "대표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를 신설했다. 또 제4조(후보순번제)는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8회기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으며, "교회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의 본질 회복과, 일치와 연합을 통한 선교적 사명을 굳게 인식하고, 사회 통합과 약자를 위한 이타적 사랑을 세상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 응답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8회 총회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했다.

또 서기에 김병근 목사(예장 합동총신 총회장)가 유임됐고, 나머지 임원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은 대표회장에게 임명을 위임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권태진 목사의 사회로 박만수 목사(개혁개신 총회장)가 기도하고, 김명찬 목사(총무협 회장)가 성경을 봉독한 후 군포제일교회 마리아중창단의 특송에 이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우리가 살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정서영 목사(경증대표회장)가 맡았다. 이동석 목사는 설교에서 "말씀운동, 성령운동, 연합운동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며 "그동안 한국교회 통합을 위해 노력했으나 신뢰 부족으로 하나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그러나 한기연은 한국교회를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 나아가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연은 제8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취임식을 오는 13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갖기로 했으며, 2019년 신년하례회는 1월 7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 연회실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각 교단에서 축하의 뜻으로 보내 온 사랑의 쌀을 모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하고, 노숙인 사랑의 밥퍼행사를 갖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한직선 새 대표회장엔 박은규 장로 선출



박은규 한직선 신임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가 8일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열린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엔 박은규 장로(61, 대전 예들순복음교회)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박은규 대표회장은 2015년 대전시청을 명예퇴직하고 현재 포스코건설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대전지역직장선교연합회에서 활동한 박 대표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시청선교회 회장 겸 대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2016년부터 최근까지 한직선 중앙회 네트워크(지역, 직능) 본부장으로 활동하다 이번에 한직선 대표회장으로 섬기게 됐다. 임기는 1년이다.

박은규 대표회장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명예이사장님, 명예회장님들의 권유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직장에 직장선교회를 세우고,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한직선의 비전을 따라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비중을 두고 사역하고 싶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직선 관계자는 "박은규 신임 대표회장님은 기도하는 분으로, 성실과 온유, 긍정적 마인드로 늘 나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믿음의 눈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 오신 분이"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윤여용 한직선 이사장의 사회로 2018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승인과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후 대표회장 선출, 공동대표 및 부회장 명부 발표, 신임이사와 친구대표 회장, 신임임원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창립 37주년 감사예배는 전종문 수유중앙교회 목사가 설교를 전했으며 이영환 한직선 지도목사의 축도로 드러졌다. 이지희 기자



엘렌쇼에 출연했던 로렌 데이글(오른쪽). ©유튜브 영상 캡처

로렌 데이글 “동성애 죄인지 잘 몰라... 난 하나님 아냐”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밝혀

그라미상 후보에 오른 미국의 유명 CCM 가수 로렌 데이글(Lauren Daigle)의 동성애 관련 발언이 현지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이하트(iHeart) 라디오 ‘더 도미닉 나티쇼’(The Domenick Nati Show)에 출연한 데이글은 “동성애가 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자인 나티는 ‘엘렌 드제너러스쇼’(이하 엘렌쇼)와 같은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작한 그녀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동성애는 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데이글은 “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을 못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 그들은 동성애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

이 이런 질문들을 할 때마다 난 ‘성경을 읽고, 스스로 찾아보라. 당신이 알게 된다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배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한편, 데이글은 지난 10월 24일 ‘엘렌쇼’에 출연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 대부분은 엘렌이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데이글의 방송 출연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데이글은 “엘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녀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방향하며 예배의 뿌리를 포기하고 세속적인 가수가 될 수도 있지만, 내게 있어서 믿음과 사명은 지금보다 더 분명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크리스 프랫, 디즈니 행사 참석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디즈니 캔들라이트 행사에 참석한 배우 크리스 프랫. ©유튜브 영상 캡처

영화 ‘가디언즈오브 갤럭시’ ‘슈라기 공원’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크리스 프랫이 최근 디즈니랜드의 연례 행사인 캔들라이트(Candlelight) 축제에 참석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증거했다.

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 행사에 참석한 크리스 프랫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선보이며 누가복음을 읽고 청중들과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을 바꿔 놓았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부인인 안나 패리스와의 사이에 6살 된 아들을 두고 있다.

이어 “이 귀한 아들을 쳐다볼 때 그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된다. 나는 그저 순수하고 끝까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느낀다”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자녀를 더 사

랑할수록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객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프랫은 “우리 모두는 특별한 창조물이며,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노력에 놀라워하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함을 준다. 나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탄절 휴가 시즌, 우리 모두의 미래를 희망과 사랑으로 포용하자. 그리고 이 성탄절의 정신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친선을 계속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랫은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며 인사를 마쳤다. 크리스 프랫의 아들인 잭은 지난 2012년 조산해 인큐베이터에서 몇주를 보냈다. 프랫은 그같은 시련을 겪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아들 부시’ 전 대통령 “아버지는 기쁨으로 선한 주님 만나셨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가 94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조지 H.W.부시의 장례식에서 추도 연설을 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위엄과 유머, 친절함을 보여주셨다”면서 고인을 떠올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위협과 유머, 친절로 성장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마침내 선한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용기와 앞에 놓인 약속에 대한 기쁨으로 선하신 주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주셨다. 그분은 열정적이었고, 혈통보다 인물을 중요시했으며 냉소가 없으셨다. 평소

에 각 사람의 장점을 찾고 이를 발견하신 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공직이 매우 고귀하고 필요한 자리임을 가르쳐주셨다. 공직은 정직하게 봉사하고, 신앙이나 가족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또 “1953년 3세 딸 로빈의 죽음 등 시험의 때에 아버지는 조용한 믿음을 갖고 전능하신 분의 사랑으로 버티셨다”고 회상했다. 추도사 마지막에는 “아들과 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다. 이제 아버지는 여동생 로빈을 안고, 어머니의 손을 다시 꼭 잡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장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 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여 할과 길의나래 (월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명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명이라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장예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름날) 7:00am
최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일찬양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예민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양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부 주일 오후 5:30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렐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사랑으로 열방을 삼는 복음전도 사. ILL W. JESUS 사랑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성경회 오후 8:00 설거주예배,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인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서신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목)

람창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목)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예수님의 제자되고 되게하는 믿음의 공동체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림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6: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9년만에 봉헌 "건축은 끝이 아니라 청년사역의 새로운 시작"



사진은 십자가탑(오른쪽) 공사만 남은 지난 11월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전경.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요람'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을 봉헌한다.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 목사)와 민·군공동건축위원회(위원장 김진영 장로)는 새 예배당 건축이 완공됐으며, 성탄절을 맞아해 22일 오후 1시 봉헌예배를 드린다고 5일 밝혔다.

2010년 군종목사 파송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은 기존 예배당이 좁고 노후화되었을 뿐 아니라, 아전 신병교육대를 육군훈련소로 통합하겠다는 2009년 국방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로 부대 증편이 예상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신병교육대 통합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신축'에서 현 예배당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새 예배당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논산 지구병원 앞 대지에 건축된 새 예배당은 2012년 10월 10일 대지확보 차원에서 기공예배를 드리고, 2015년 4월 30일 착공예배를 드렸다. 같은 해 8월 24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8년 12월 말 모든 건축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현

재는 십자가탑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새 예배당은 대지 약 1만 5,000평, 건물 약 2,300평 규모의 반원스타디움형 건물로 5,000여 명이 수용할 수 있다.

약 200억 원의 건축비는 군종목사 파송교단을 중심으로 한 일반교회, 군인교회, 교계 단체와 개미 군단이 정성을 모았다. 극동방송 생방송 모금, 한국기독교선교연합회(CBMC) 특별모금, 육군 소속 군인교회 군선교의 날 제정 및 건축비 모금 등 특별 모금이 활발히 진행됐다. 이 외에 군생활 중 모은 적금을 갠 용사, 천국에 간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한 목사, 아르바이트를 하여 7만 원을 모아 헌금한 노 권사,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작성 헌금한 교회 성도들, 건축비 모금을 위해 세 주간 군선교 주일로 지킨 교회 등 수많은 사연이 있다.

한국기독교교선교연합회는 "한국교회 성장의 마중물이 됐던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육군훈련소에서 시작됐듯이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해 청년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한국교회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해서 써질 것"이라며 "이번 건축은 끝이 아니라 청년사역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를 전했다.

이지희 기자

캘리포니아 산불 속에서도 전소되지 않은 십자가 "하나님 살아계셔"



'캠프파이어'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십자가 사진. ©Brandon Merrick 페이스북

얼마 전 일어난 대형참사인 캘리포니아 산불 속에서도 전소되지 않고 남은 커다란 나무 십자가가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주 루터 교회(Our Savior Lutheran Church) 브랜든 매릭 목사는 54년 된 교회 건물과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사택이 산불로 인해 전소된 이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십자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사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도 파괴 될 수 없는 비극 가운데서 발견한 진실한 희망"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메모를 읽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붙들고 있다. 그 분은 십자가를 통해 당신을 보시고 그분의 유일한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사진에서 저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죄의 궁극적인 결과와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새로운 삶을 보는 방법을 이해한다"고 글을 썼다. 그는 슬픔에 잠긴 회중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분의 약속과 확실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는 계속 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상상할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혼자서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타일러 프랭크(Tyler Frank)와 엘리자베스 오스본(Elizabeth Osborn)이 화염을 피할 때 찍은 십자가 사진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비극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기시키는 사진으로 공유되고 있다.

미국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시작된 캘리포니아 산불 '캠프파이어'는 '파라다이스' 타운을 휩쓸었고 이 도시의 95%가 파괴됐다. 2만 7천명이 거주하던 이 마을에서 수십명이 사망했고 1만 9천여개의 건물 및 주택이 파괴됐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기록을 남겼다. 85명이 사망하고 993명이 실종되었으며 10,360개의 거주지와 15만 에이커의 면적 불타버렸다. 미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불은 완전히 진화됐다.

매릭 목사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십자가 사진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큰 기회'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교회에 그 사진이 불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정말로 희망한다. 왜냐하면 교회로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부패하기 쉽지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 것은 불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대강절의 기다림

대강절(Advent)은 ‘옴’,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기대하며 준비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을 가리킵니다.

대강절(待降節)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대림절(待臨節), 강림절(降臨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절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과거적 의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총체적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첫째는 육신으로 곧 탄생하실 주님을 기다리던 이전전년의 상황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경건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셋째는 세상 종말에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준비하며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처럼 서방의 교회들은 대강절 장식물로서 동글고 푸른 상록수에 초를 쬐는 일을 합니다. 동글고 푸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입

12월의 시인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달이다. 시를 함께 읽어보면 서남은 해를 잘 마무리하자.

① “남은 달력 한 장이, 작은 바람에도 팔랑거리는 세월인데, 한 해를 채웠다는 가슴은 내놓을 게 없습디다/ 욕심을 버리자고 다잡은 마음 이었는데 손 하나는 펼치면서, 뒤에 감춘 손은 꼭 쥐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비우면 채워지는 이치를 이제 어렵듯이 알련만, 한치 앞도 모르는 숙맥이 되어/ 또 누군가 원망하며 미워합니다/ 돌려보면 아쉬운 필름만이 허공에 돌고 다시 잡으려 손을 내밀어 봐도, 기억의 언질도 받지 못한 채 빈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텅 빈 가슴을 또 드러내어도, 내년에는 더 나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쩔니까(12월의 독백/ 오광수)”

② “사랑의 종, 시린 가슴 녹여 줄, 따뜻한 종이였음 좋겠다/ 그늘진 곳에,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음 좋겠다/ 딸랑딸랑 소리에, 가슴을 열고, 시린 손 꼭 잡아주는, 따뜻한



김형태 박사
한국교육자선교회

한 손이었음 좋겠다/ 바람 불어 나면 열은 뭉구는데,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허전한 가슴(12월은/ 하영순)”

⑤ “마지막 달력을 벽에 겁니다, 얼굴에 잔주름 늘어가고, 흰 머리카락이 더 많이 섞이고, 마음이 많이 낡아져가며, 무사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세상살이, 일초의 건너뎠도 용서치 않고, 또박또박 품고 온 발자국의 무게, 여기다 풀어놓습니다/ 제 얼굴에 책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전명으로 가는 마지막 한 달은, 숨이 참니다/ 겨울 바람 앞에도 붉은 입술 감추지 못하는 장미처럼, 질기게

니다. 또한,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처음 석 주 동안 밝히는 촛불은 보라색으로 주님 모시기에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기다린다는 의미요, 네 번째 주일 불을 밝히는 분홍색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둥근 상록수 중앙에 성탄절에 쬐는 흰 초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의 예전 색깔도 보라색이 되고, 성탄절 날은 흰색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마음에 모시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영접한 분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 허욕을 좇는 어리석은 나를 묵묵히 지켜보아주는 굵은 나무들에게 올해 마지막 반성문을 씌웁니다/ 추종하는 신은 누구라고 이름 짓지 않아도, 어둠 타고 오는 아득한 별빛같이 날마다 몸을 바꾸는 달빛 같이 때가 되면 이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기도로 12월을 벽에 겁니다(12월의 기도/ 목필균)”

⑥ “떠도는 그대 영혼 더욱 쓸쓸 하라고 눈이 내린다/ 닫혀 있는 거리, 아직 예수님은 돌아오지 않고, 종말처럼 날이 저문다/ 가난한 날에는 그리움도 죄가 되나니, 그대 더욱 목메이라고, 길이 막힌다/ 흑백사진처럼 정지해 있는 시간, 누군가 흐느끼고 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폭설 속에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언덕길, 지워지고 있다(12월/ 이수)”

⑦ “달력 달력 한 장, 달랑 까치밥 하나, 펄렁, 상수리 낙엽 한 장, 썰렁 저녁 찬바람, 몽클 저미는 그리움(12월 어느 오후/ 손석철)”

젠더 이데올로기(1)-신에 대한 또 다른 도전

시대가 바뀌면 늘 신조어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 중 5천년 한민족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단어가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젠더(Gender)’이다.

‘젠더’란 원래 문법적으로 남성형과 여성형을 구분짓을 때 사용하던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는 출생 시의 생물학적인 성별을 대신하거나 심지어 이를 부인하는 새로운 성별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젠더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들이 젠더를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이라거나 개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성별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이다. 생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이다. 과학적으로는 염색체를 기준으로 XY면 남자, XX면 여자로 완전히 구분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구분된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별 정체성에 따라 모든 사회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왔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인류 문명사를 보면 말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마치 젠더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곁에 늘 있어왔던 것처럼 친숙하게 느끼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에서 생물학적인 성별 구분인 ‘섹스(Sex) 혹은 양성’ 대신 ‘젠더 혹은 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대학가에서도 ‘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뭔가 더 지적인 사람인양 취급하는 분위기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된



정소영 변호사

연유를 알고자 한다면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가량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일단 1818년 칼 마르크스의 탄생은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역사를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기존의 사회질서와 기득권을 타파하여 평등하고 인간미 넘치는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그의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후대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해체, 해방, 혁명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변주를 이루며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울림을 주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껏 사적인 영역이었던 남녀간의 성생활과 그것을 기초로 세워진 가족관계를 계급간의 억압과 착취구조로 보고 이를 해체하려 했던 마르크스로부터 영감을 얻어, 인간에게 부여된 생물학적인 성별 정체성을 자연이, 더 나아가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자이자 창조주가 부여한 억압의 굴레라고 보고 이것을 해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젠더 이데올로기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남

자 혹은 여자라는 고정된 성별 정체성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인간을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며, 스스로가 정의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토대라고 생각하였다.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인간의 성별 정체성은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마치 스펙트럼처럼 LG-BTQIA...등등 다양한 성별정체성이 펼쳐져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매일 변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되고 더 늘어나서 이들이 상징으로 삼고 있는 6가지 색깔의 무지개처럼 더욱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된다고 한다.

창세기에는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몰래 훔쳐 먹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후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우상이 되어 자기 소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있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는 선악과로 이미 한번 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들이 이제 남은 생명나무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상상적 흐름이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근원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뚜렷이 구별된 성별 정체성이 있고, 이를 토대로 가정이 성립되고 생명이 태어난다. 이제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이름으로, 과학의 이름으로, 생명 창조 질서의 근원을 흔들며 대며 이 금단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장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행복재단(한영제)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장재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위치한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단(PCUSA)에 속해 있으며 담임목사님의 정년 퇴임으로 인하여 새롭게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참조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자격**
1) 정규 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은 분
2) PCUSA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
3)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소유하신 분
- 2.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사진 첨부, 본인 및 가족) : PCUSA의 PIF 양식(개인 정보 양식)을 선호합니다.
2) 학부 및 신학대학원(M.Div) 졸업 증명서와 목사 안수증명서 각 1부
3) 자기 소개서 및 신앙 고백과 목회 비전 및 계획 Statement
4) 목회자 2인의 추천서(추천인 싸인 연락처 및 전화번호 기재)
5) 최근 6개월 내의 설교 2편 (동영상이나 CD)
- 3.제출안내**
1) 서류는 2018년 11월 15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 메일로 접수합니다.
2) 문의 및 접수처
-문의: 청빙위원장(오케빈 장로): klovej42@hotmail.com
T. 561-312-1274
-접수처
이메일 : klovej42@hotmail.com
우편 접수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PNC)
301 S. Olive Ave., West Palm Beach, FL 33401

***참조**
교회 홈페이지: www.pbkc.org
제출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팜비치 한인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Palm Beach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저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 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동소령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NET WT. 3.5oz (100g) Brand Cordyceps Powder
구입 문의 213.434.1170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ORION AUTO SERVICE
 ASE CERTIFIED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 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현장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 (213) 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
 ✓ 발가락 {퇴행성 관절염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속한 코골이 증상
 •치질(항문하혈, 통증) •우울증
 •독소제거, 혈관 청소 •관절염, 다리 쥐 오름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불임증 (자궁축, 하혈) •만성두통, 요통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 381-0081, FAX: (213) 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103,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m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213) 388-1000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종교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 527-0691(0692) Fax: (714) 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뷰] 마커스 미니스트리 설립자 김준영 대표

그 삶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흘러가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과 모양은 시대와
세대에 맞게 끊임없이 바뀌어야
승천 이후 우리에게 이어진 사명 강조하고 파

매년 12월이면 전 세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빛나고, 캐롤이 울려 퍼진다. 교회는 대림절을 맞아 크리스마스 행사를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크리스천투데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예배 곡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를 쓴 작사가 김준영 대표(마커스 미니스트리)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김준영 대표는 마커스 미니스트리의 설립자로 현재 나의미래공작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은 산 같아서', '날 향한 계획', '주를 위한 이곳에',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 '동행' 등 널리 사랑받는 많은 예배 곡을 발표했다.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는 어떻게 썼을까?

"예배 모임에서 찬양을 하다가 문득 떠오른 문구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순종과 눈물, 죽어야 살게 되는, 그분이 오신 진짜 이유' 등 계속해서 노랫말이 떠올랐어요. 예배 후에 어느 정도 수첩에 끄적인 초안을 바탕으로 나중에 가사로 완성을 했습니다." 김준영 대표의 당시 상황은 그의 블로그 글에도 남겨져 있다.

"그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흘러가야 함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계획된 엄청난 이 사랑의 실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이 있었는지,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로 인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가 오신 이유'에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노래한다. 이쯤에서 잠시 김준영 대표를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인다. 그는 모태신앙이지만 20대에 들어 방황했고, 군대를 다녀온 후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한다. 이런 그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것이 그의 저서 '나는 마커스입니다'와, 마커스 앨범에 수록된 '주님의 사랑'이라는 곡이다. 그 후로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어느덧 오랜 사역의 길을 걸어온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신실하게 이끌어오신 주님을 저의 삶의 순종과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원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지금껏 살아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안정적이라는 것은 늘 고인 물이 되고



마커스 설립자 김준영 대표. 그는 가사를 쓸 때 내러티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개연성 없는 메시지, 줄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과 한 단어, 가사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전체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한다.

도태하고 안주하며 타락하기 쉬운 길이지요. 하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삶이라는 믿음의 모험은 늘 긴장과 겸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의 일 하심을 체험하고 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제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늘 그에 맞게 새롭게 모양과 형식을 요구하십니다. 매번 새롭고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지만 늘 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모습일 뿐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한 모습으로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변하며 역사와 문화는 끊임없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같은 모양과 그릇에만 담아서 전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담는 그릇과 모양은 시대와 세대에 맞게 끊임없이 바뀌어 줍니다. 바로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주님은 제게 늘 끊임없이 이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진리인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보여지고 들리고 전해질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게 성령님은 앞서 일하시며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Our Saviour Jesus Christ)" 마커스는 '그가 오신 이유'가 타이틀 곡으로 수록된 마커스의 정규 앨범 5집(사랑하셔서 오시었네)을 이렇게 소개한다. 이처럼

이 앨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해 김준영 대표는 세심한 기획이 필요했다고 전한다.

"11번째 곡으로 '그가 오신 이유'가 수록됐는데, 특별히 11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앨범이어서 기획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컨셉트와 기획, 송리스트까지 큰 그림은 제가 잡았습니다. 확정된 곡은 예배 인도자들 및 프로듀서와 함께 정했죠.

예수님의 오심과 살아오신 여정,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기반으로 그 의미와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구성입니다. 곡의 위치마다 그에 맞는 주제와 내용의 노래가 필요해서 곡을 구성하는 데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 호산나 인티그리티 뮤직의 노래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앨범에서 깊이와 다양한 주제의 노래들을 찾을 수 있었죠."

특히 김준영 대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를 가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포커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이 아쉬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그 이후 우리에게 이어지고 주어진 사명에 대해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명과 함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이유, 부활하신 이유

가 정말 무엇때문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틀 곡 '그가 오신 이유'가 11번에 위치하게 되었네요(웃음). 이것이 주제이니 직접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김 대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라는 '그가 오신 이유'의 가사처럼 부르심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시는 구원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이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과 섬김 그리고 부르심과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겸손과 섬김, 부르심과 사역을 앞세우며 자신의 일과 명에 단체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배척하고 분리합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사역자들의 모습인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오신 이유'. 이 노래가 우리에게 현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 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신의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겨울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등록마감일: 2018년 12월 10일
등록상담전화 : 310-678-6836

겨울학기일정

2018년 12월 15일 (토) - 2019년 2월 23일 (토)
(매주 토요일 4과목 12학점이 개설됩니다)

- 1교시 | 오전 9시 - 오전 11시
- 2교시 | 오전 11시 10분 - 오후 1시 10분
- 점심식사 | 오후 1시 10분 - 오후 2시 10분
- 채플 | 오후 2시 10분 - 오후 2시 40분
- 3교시 | 오후 2시 40분 - 오후 4시 40분
- 4교시 | 오후 4시 50분 - 오후 6시 50분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모집과정

- 학사**
 - BACHELOR OF THEOLOGY 신학사
 - BACHELOR OF MISSIONARY 선교학사
 - BACHELO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사
 -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사
- 석사**
 - MASTER OF DIVINITY 교역학석사
 - MASTER OF THEOLOGY 신학석사
 - MASTER OF MISSIONARY 선교학사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사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사
- 박사**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DOCTOR OF THEOLOGY 신학박사
 - DOCTOR OF MISSIONARY 선교학박사
 - PH.D.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상담학박사
 - PH.D.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학박사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르는 길"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에 등장하는 짐 카비젤(왼쪽)과 제임스 폴크너. ©영화 스틸 컷

영화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Paul, Apostle of Christ, 이하 '바울')가 지난해 개봉한 기독교 소재 영화의 관객동원 기록을 모두 재치고 누적 관객수 약 25만 명을 달성했다. 특히 영화 '바울'은 '기독교적 메시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30여년 후인 AD 67년을 배경으로 하며,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집중 조명한다.

영화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시작한다. 누가(제임스 카비젤)는 바울(제임스 폴크너)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로마로 왔고, 크리스천들은 네로 황제의 '피의 서커스'에 내던져져 거나 불태워져 로마 거리를 비추는 '빛'이 됐다. 대중적 상업 영화가 아닌

에도 불구하고, 영화적 긴장감이 팽팽해 몰입감이 상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조앤 웨일리)와 아굴라(존 린치)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크리스천들을 향한 핍박은 계속됐고 이주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곳에 증오와 폭력, 험기로 복수를 이루려는 일부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누가(제임스 카비젤)의 안에도 미움이 자리 잡으려 한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의 길"을 가야한다며 누가를 달랬고, 살인을 하고 자신을 구하려 온 무리에게는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이겼다"며 "자네는 그분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했지만, 그분을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나무랐다. 선으

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말처럼 오랜 기간 가장 많은 이들이 순교한 기독교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는 액자 형식을 구성하며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제임스 폴크너)을 조명한다. 스테반의 죽음, 수많은 크리스천을 향한 핍박, 피로 물든 손...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난다. 바울(제임스 폴크너)은 아나니아에게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라 칭하면서 "우리 모두 그러하다"며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이야기한다.

특이한 점은 영화 속 바울은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꾀는 것이다. 과거의 그가 핍박하고 죽인

신앙으로 인해 핍박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 상업 영화가 아님에도 영화적 긴장감과 몰입감이 상당히 앤드루 하이아트 감독,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 역의 짐 카비젤이 누가 역 맡아

사람들이 나오는 꿈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 꿈의 결말을 보지 못한다.

'복음'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바울.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선교의 삶을 살았을 지에 대한 제작자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영화는 무겁고 깊게 담아낸다. 바울은 결국 '순교' 당한 후에 지금껏 꿰찼던 꿈의 결말을 보게 된다. 순교 당하는 순간 그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이야기 한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디모데후서 4장 8)"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는 감옥의 담당자 모리셔스 갈라스(올리비에 마르티네즈)와 누가(제임스 카비젤)의 관계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모리셔스 갈라스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딸을 구하고자 누가에게 손을 내민다. 누가는 원수의 딸을 구하는 과정을 지나며 전반부와 달리 복음을 보다 가까이서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은 달라진 모리셔스 갈라스에게 바

울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시며, 그분이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리셔스 갈라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아닌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신앙은 그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 그것은 그와 하나님만 알 것이다.

끝으로 영화 '바울'은 제작된 목적에 대해 분명히 소개한다. 'THIS FILM IS DEDICATED TO ALL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THEIR FAITH'(이 영화는 신앙으로 인해 핍박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됐다).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은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상적인 점은 영화에서 크리스천이 핍박을 받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화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통을 지켜보는 사람의 눈물로 대체됐고, 어린아이부터 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문을 나가는 장면에서 끝이 난다. 연출자가 현재 핍박 받는 이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없던 마음 때문이었는지, 시각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더 많은 여운을 남기려 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판단은 관객 각자의 몫이다.

김신의 기자

"지옥이라 불린 북한 교화소에서 절 지켜주신 주님"

UN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북한인권 국제포럼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탈북 후 중국 공안의 체포로 강제 복송을 2회 경험하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3번째 탈북에 성공한 기독교인 이영주 씨(44)가 증언자로 나섰다.

1997년 당시 이 씨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을 결심했다. 이 씨는 중국으로 돈을 벌러 갔지만 탈북자 신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래방 도우미'와 '강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 "중국 내 브로커들에 팔려가 다른 나라의 남자와 살면서 문화적 갈등과 부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것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중국에서 낳은 아이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지만 중국 공안에 잡혀버렸다.

이 씨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퍼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리라 생각했다. 감

방에서 다른 탈북자들의 눈을 피해 하루 한 끼씩 열흘 간 금식했다. 중국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셨다"고 했다.

당시 그녀의 나이 34세. 복송 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고 이감될 때마다 전기 곤봉과 나무 의자로 두들겨 맞았다. 고문을 받고 풀려난 뒤, 다시 중국으로 탈북, 숨죽이며 살았지만 다시 체포됐다. 이 씨는 "참새로 태어났어도 복송 되지 않을텐데 복송이 죽기보다 싫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더니 눈물을 흘렸다. 이어 "보위부에서 만난, 이마가 깨져 피가 날 정도로 폭행 당한 처녀 아이들"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위험을 알면서도 식전기도를 하던 아이"에 대해 증언했다.

이 씨는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조사 기록이 없어 불법월경죄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후 신의주 보위부 감방에서 단련대로, 다시 전거리

교화소로 이송됐다고. 그녀가 간 교화소는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시설이었지만, 탈북자가 많아지면서 1년이 지난 후 수용자가 1,20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이들은 감옥을 만드는 강제 노동에 동원됐다.

이 씨는 "새 감방으로 옮기게 됐다. 거기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만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다"며 "비록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지만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이 씨는 1,200명 죄수들의 하루 세끼를 담당하는 취사 반장까지 맡게 됐다. 그 덕에 수감 생활 동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간증 했다.

"간수들의 눈을 피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시편 말씀을 암기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 한국행을 가려던 길을 지켜주시고, 은성보위부와 신의주보위부에서 나

를 지켜주시고, 살아있는 지옥이라 불리우는 전거리교화소에서 3년 반을 늘 저와 동료들을 지켜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옥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중국에 두고 온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은 늘 내 등 뒤에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서 역사하셨고, 북한에서 주님을 전하라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고 은혜가 충만했던, 그리고 온 하루를 하나님과 오로지 동행했던 영광의 시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북한 회령에 있는 전거리 12교화소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눈물로 저 땅을 위해 마음을 찢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온 탈북민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북한 구원의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에스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많은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한편 이날 국제포럼은 '북한의 박해받는사람들을기억하는사람들(ZAKAR KOREA)'이 주최했고, 북한정의연대(Justice for North Korea)가 주관했다.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오늘은 UN세계인권 선언이 선포된지 70주년 되는 날이다. 70년 동안 북한은 이러한 국제 기준을 위반하고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과 향후 처벌의 근거 자료 수집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 중에 있다. 오늘 북한인권국제포럼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취합된 북한의 박해받는 사람들의 실태를 짚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신의 기자

축성탄

<h3 style="text-align: center;">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RPCA)</h3> <p> 총회장 : 김인철 목사 부총회장 : 강성수 목사 총무 : 김엘리아 목사 서기 : 김진규 목사 부서기 : 김영일 목사 회록서기 : 전창식 목사 부 회록서기 : 이명희 목사 회계 : 한수지 목사 부회계 : 손사라 목사 감사 : 주재임목사, 송정순 목사 </p>	<h3 style="text-align: center;">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교</h3> <p> 총장 : 김엘리아 박사 </p> <p> 교수 : 송 인 교수, 고영준 교수, 민준기 교수, 이경화 교수, 최선영 교수, 이학진 교수, 정우성 교수, 정한나 교수, 서승원 교수, 김영대 교수, 김정복 교수, 폴 리 교수, 윤태환 교수, 임영호 교수 </p>	<h3 style="text-align: center;">나눔과 섬김의 교회</h3> <p> 담임목사 : 김엘리아 목사 전도사 : 조현숙 </p> <p>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6:00 </p>
--	--	--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T.(213)272-6031

“한국교회 예배, 화려함 추구하다… 정작 경건함 사라져”

신개념 기독교 고전 학습서 <특강 예배모범> 발간 손재익 목사

모든 교인들 교단 헌법책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
은혜와 감동은 다른데… 감동을 은혜로 착각하니
예배에 자꾸 시각적·청각적 요소들 도입하고 있어
장례 기간 예배, 어느 때든 한 번만 하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예배’란 ‘공기’와 같은 것이다. 매 주일뿐 아니라 매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 등에도 ‘예배’를 드리고, 결혼식과 장례식, 목회자의 가정 방문, 개업 축하 등 생활 속에서도, 기독교 계열 각종 기관 이·취임 등 행사에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그만큼 흔하지만, 그만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기도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교리교육 커리큘럼 필수교재’ 시리즈를 출간중인 흑곰북스에서 이번에는 ‘예배’에 대한 책이 나왔다. 예배 순서 하나 하나와 함께, 믿음의 선배들의 지켜내고 전수한 신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신개념 기독교 고전 학습서’이다.

저자인 손재익 목사는 오래 전부터 ‘표준문서’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이 책에 앞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나온’ 주제의 책인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좋은씨앗)도 펴냈다. 다음은 손재익 목사의 이야기.

-이번에 나온 <특강 예배모범>을 비롯해 저서들 대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 나온 문서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과 사도신경, 신앙고백서 등에 대한 책들이네요.

“6년 전엔가 <특강 소요리문답>이 나오고 나서 저자인 황희상 작가님과 이야기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예배 모범’에 대해 출판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주목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거기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계명을 설교할 때 참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강하게 받았습시다. ‘칭의’에 대한 책이 곧 나오는데, 여기서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순서는 첫째가 성경, 둘째가 신앙고백서, 셋째가 교회사입니다. 제가 썼던 책들은 다 그런 틀 속에서 나왔습니다.”

-예배 모범이 교단 헌법에도 있다고요?

“사실 모든 교단 헌법에 다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시는데, 헌법이 교인들의 실제 신앙과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헌법에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많은데, 노회나 총회에 가 보면 교회 정치,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만 헌법이 사용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의 ‘정치’에는 좋은 의미에서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헌법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자기 주장의 근거를 내세우기 위한 장치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헌법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예상 고신 교단에서는 이렇게 그 헌법을 해설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서문만 봐도 내용이 참 잘 쓰여졌습니다.

저는 모든 교인들이 헌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하면 헌법과 헌법 해설집을 선물로 드립니다.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서, 예배지침과 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형편이 있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정해진 규격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같은 교단이라면 순서상 차이는 있더라도 예배 분위기나 정서에 있어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영락교회와 온누리교회 예배는 같은 교단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경건함이 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경건이 가장 기본적 정서인데,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설교에서 이목을 끌고자 합니다. 설교 후 ‘하나님 말씀들 들었다’는 느낌보다 ‘강의 참 잘 하시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감동적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20여년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간 것이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예배에 있어 강조하는 부분은.

“예배에서는 사람이 전혀 드러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 예배를 보면, 사람이 드러납니다. 설교자들만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피아노 연주자의 손을 ‘zoom인’ 해서 감동을 주는 것 같은, 불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찬송을 부를 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맡은 순서에서만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 저 회중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돼서 좋습니다. 설교자도 회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런 요소들이 자꾸 첨가될까요?

“은혜와 감동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동받은 것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청각적 요소들을 도입합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당이 화려해졌습니다. 빛이 짙고 들어오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퍼져 나갑니다. 오늘날도 형태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는 말만 들어도 은혜인데, 감동을 받아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본문을 선택함에 있어, 감동이 없는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감동만 받고, 성경 지식을 골고루 얻지 못한 채 과거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강하다 평강하다’는 말씀만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예배에 와 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설교도 재미가 있진 않습니다. 40분 정도 설교하니, 쫓진 않습니다. 설교에서 이야기해야 할 논리가 있기에, 짧은 설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예배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논리 전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 속에 풍성한 논리가 담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도 짧게 할 수 있겠지만, 짧게 해서 간단한 정보만 줄 수 있을 뿐, 제대로 내용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날 예배가 가벼워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설교가 짧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진중함은 분량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졌던 17세기와 달리 예배 환경 등에 있어 많은 것이 바뀌었



손재익 목사가 자신의 저서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습니다.

“교단 헌법 내 예배 모범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단들이 정치적 인 부분의 헌법 조항에만 신경을 쓸 뿐, 예배나 정치 모범은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바뀌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바깥 때도 ‘개악(改惡)’이 되면 안 되는데, 대부분 한국교회 교단들은 ‘개악’을 선택합니다. 현실이 법에 안 맞으면 현실을 바꿔야 할텐데, 자꾸 법을 고치려 합니다. 그래서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을 하는 교회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성찬을 예배 모범에서 아예 빼다든지 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예배 모범은 큰 틀만 제시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것은 개교회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도 저희 교단 총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각 당회가 알아서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합니다. 총회에서 정해 버리면 하나의 법이 되어서 획일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에, 법으로 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교회 치리회의 권위도 설 수 있습니다. 당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도 당회의 소관입니다. 지금은 교역자회나 예배위원회가 따로 관장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이 평소애 사적 모임에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적 예배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교회에는 아이들도 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분에게 허락하면 모두 허락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배가 영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금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스마트폰의 다른 것들을 함께 보게 돼 있습니다.”

-예배 모범 뒷부분에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대한 것도 있던데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목회의 상당 시간을 ‘장례’에 투자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은 예배가 1번인데, 장례는 3-4번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나 불만을 갖지 않고 관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관창하지만, 교인 숫자가 애매한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장례 절차에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말은 교구에서 장례가 있으면, 장지가 멀 경우 1주일이나 갑니다. 장례 기간 예배는 어느 때든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3-4번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산 자를 위한 곳인데, 산 자에게 투자해야 할 시간이…”

유교식 장례법이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유족들도 피곤해합니다. 와서 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겠지만, 이곳 저곳에서 와서 예배드리면 몇 번이겠습니까.” 이대용 기자



NEW COVENANT ACADEMY

est. 1999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20TH ANNIVERSARY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 킨더부터 12학년 WASC 인준 학교
- AP 및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제공
- 100% UC 계열 대학 진학
- 졸업생 평균 SAT 점수 1390점
- 학업성과 전국 톱 10% 내
- CIF 스포츠팀 (농구, 배구 등)
-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교사진
- 저렴한 학비 및 보조금/장학금 제공
- 교사 대 학생 비율 11:1

OPEN HOUSE
January 24, 2019 @ 7pm





☎ (213) 487-5437

🌐 www.e-nca.org

✉ info@e-nca.org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Christmas**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호와께서 가타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30:18)

기쁜우리교회
 Joyful Christian Community Church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joyfulccc.office@gmail.com 818-662-0400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 3부 오전 11:15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9:00 (교육관)

JCCC Academy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교육부 오전 11:30
-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30
- 수요 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choonghyun.org

민중기 담임목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충현선교교회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축성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810-3455 / F. (626) 964-5559